

東아시아의 佛敎食文化比較研究
—京都 西本願寺의 [御正忌]—

김 천 호

한양여자전문대학 식품영양과

(1995년 11월 22일 접수)

Study on Buddhist Dietary Culture in East Asia
—[Goshogi] of Nishihonganji in Kyoto—

Chon-Ho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yang Wamen's College

(Received November 22, 1995)

Abstract

[Goshogi] which is held from 9th to 16th January, every year is the Buddhist service of praying for the soul of Shinran's (1173~1262) after death. It is the most majestic high-filling style and also unparalleled in the annals of Japanese history in sacrificial offering. Shinran was borned in the Fujiwara's family. And not only he believed Prince Shodoku's belief but also retired to the mountain to enter the priesthood by it. Prince Shodoku built Horyu temple which is the typical temple of Nara ages. Buddhism was transmitted from Korean peninsula, three countries of Silla, Bekje and Kokuryo effected on many field of Japanese culture during that ages. At the same time, Kasugadaisha and Danjanjinja of Shinto religion was built by Fujiwara Family. Both of them was Buddhist temple before. Throughout like these historical background, the facts what the religious services and the sacrificial offerings for Prince Shodoku, Wakamiyasai of Kasugas' and Kakitsusai of Danjanjinja must be influenced from Korean Peningula. So the dietary culture of the religious rites and traditional customs between two countries could be thought the relation with a narrow stream strait. But among them, in the size, color and shape, the cooking method and technique in the usage of rice powder and sugar, it is tops in value. The noteworthy points of the thought were as follows: 1. high-filling style of the sacrificial offerings what is mixed and harmonized with Buddhism, Confucious, Sharmanism, Toaism and Korean traditional customs. 2. eating together of god and human. 3. the fusion of gods and Buddha.

I. 서 론

[御正忌]는 日本京都에 있는 西本願寺(本寺로 칭함)에서 매년 정월에 지내는 淨土 眞宗의 開祖인 親鸞聖人の 遺德을 기리는 宗派最大의 法要를 말한다. 이 법요는 친란이 弘長2년(1262년) 90才로 入滅하면서부터 올해로 733년 동안 전승되어오고 있는 齋이다. 친란의 정토진종은 원래 스승인 法然(1133~1212)의 정토종과 함께 天台宗에서 시작된 것이다¹⁾.

친태종의 근원은 중국의 친태산에서 비롯하여 전파된 것이다. 중국 梁나라 대동4년 湖南省 荊州에서 태어난 智顛(지의) 대사(538~597)가 浙江省 天台山에 들어가서 친태교학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중국불교는 서기전

139~126년경 인도로부터 들어왔으나 오랜동안 정리되지 못한채 소개되어 오다가 비로서 통일적 불교체계론을 수립하고 敎相判釋의 논쟁을 정리하는등 중국 불교계의 사상적 혁명의 계기를 만든 종파로 친태종의이라고도 한다²⁾.

한국 친태종은 백제의 玄光과 신라의 緣者, 고구려의 波若(지의에게 사사)이 한반도에 전했으나 신라시대(711~782)에 종파로 인정을 받았으며 고려 때 義天 대각국사(1055~1191)가 국청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고려에 이식되었다. 그러나 불교가 6세기경 백제로부터 일본에 전래된 이래 갖은 교류가 있었으나 어떤 종파가 전해졌냐에 관해서는 확실치 않다³⁾. 그러나 일본보다 훨씬 먼저 전파된 것은 사실이다.

일본天台宗은 比叡山の 延曆寺를 중심으로 百濟渡來僧 傳敎大師 最澄(767~822)이 805년에 天台法華宗으로 開宗을 한 것이다. 比叡山은 天台宗뿐만 아니라 일본불교의 本流로서 유서깊은 산이다. 그리고 불교전래 이전부터 특히 백제도래인을 주류로 하는 조선도래계 氏族의 “신앙의 산”, “정신과 마음의 산”으로서 日吉大社는 유명하다. 신라도래인인 大豪族 秦氏는 京都유수의 東西南北에 神社를 건립했는데 日吉大社도 그들의 氏族神을 섬기는 신사였다. 日吉大神은 명실공히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이기도 하다. 天台宗 본부인 延曆寺도 그 건립에 원조를 한 것도 秦氏家였으며 最澄의 師도 行表라는 秦氏一族이었으므로 한반도의 사상과 문화권에서의 발상, 그리고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불교 이전의 원시신앙의 바탕에서 奈良末期에 성행하던 山林修行으로 출발한 最澄에게도 자연스럽게 神佛習合 사상이 잠재해 있었을 것이며 “神은 佛의 化身, 權現”이란 개념으로 大比叡神은 석가여래, 小比叡神은 약사여래라고 한점으로 보아 神道는 天台宗의 범주안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最澄의 제자 法然의 사사를 받은 사람이 親鸞이다⁴⁾.

친란은 7~11세기에 걸쳐서 최고권력가였던 藤原家系의 一族인 日野氏출신이었으며 일본불교융성의 공헌이 큰 聖德太子(574~621)의 현몽을 받고 입산했다는 설이 있고 태자신앙을 숭앙하며 염불을 닦았다. 또한 [唐大和上東征傳]에서는 중국천태종의 慧思가 태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설까지 있을 정도로 태자도 천태종이었음을 뒷받침해 준다⁵⁾. 더우기 태자는 奈良의 法隆寺를 비롯하여 四天王寺등 7寺를 건립한 歷代에 없는 일본불교와 문화부흥의 일인자이다. 또한 태자의 佛師는 고구려의 慧慈 그리고 백제의 慧聰이었고 범용사의 건축, 미술양식과 曆書나 方術등의 학문이 삼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범용사와 本寺가 시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역사적, 종교적인 배경으로 추정컨대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알 수 있다.

저자가 전보에서 범용사에서 지낸 성덕태자의 1370 週期(1991) 聖靈會의 供物を 소개한 바 있으나 시대적 변천과정의 일환으로서 本寺의 [御正忌]의 供物과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⁶⁾.

또한 발표된 같은 奈良時代 형성된 奈良에 있는 春日大社의 [若宮祭]⁷⁾나 談山 神社 [百味御食]⁷⁾ 등의 神饌의 역사를 볼 때 兩社가 모두 藤原家系의 氏社였던 점과 神社以前에는 氏寺였던 공통점에서 兩神饌이 같이 불교형식이 그대로 전승된 것으로 본다^{7,8)}.

[御正忌]의 高排형식의 그 장엄함은 아직까지의 어느 것과는 비교가 안될 최고의 공물로 보여진다.

흔레큰상, 회갑이나 고회상차림, 국, 불공, 제례등 현재 한국풍습이나 종교의식에 남아있는 고배형식과 고배음식 그리고 채색, 식품의 종류, 조리법등은 한반도에 들어온 原始信仰, 道敎, 佛敎, 儒敎, 朱子家禮 등을 受浴, 習合하여 土着化된 한반도 특유의 식문화로 보여진다. 이상에 열거한 여러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볼 때 시대적으로 7세기 전후의 범용사, 春日大社, 談山 神社로부터 13세기의 本寺의 [御正忌]의 供物を 거쳐서 현존하는 한반도의 통과례식이나 종교제물로 변형되어 온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가정하에서 本寺의 공물을 조사, 보고하려고 한다.

II. 본 론

1. 조사시기와 방법

1995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京都市 下京區 堀川 通花屋町下ル 소재의 淨土眞宗 西本願寺에서 열리는 [御正忌] 법요에 참석조사했다. 本寺규정이 승려외에는 공물이 운반되어 오는 과정이나 공물을 진설하는 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허가하에 저자가 최초로 참여가 가능했다.

친란의 命日은 弘長2년 11월 28일이나 本寺의 新曆으로 命日에 해당되는 1월 16일을 최종일로 하여 7일간 晝夜로 행해진다. 9일 아침 6시에 龜屋陸奥라는 21代째 本寺와 관련된 공물과 일본전통과자를 만드는 곳으로부터 운반되어 온다. 그리고 9일 오후 친란의 木像이 안치되어 있는 御影堂에 공물이 차려지면서 첫번째 법요가 진행된다. 연일 하루에 3번씩 법요가 행해지는 데 전국에서 참배하러 오는 신도의 수는 10만에 이른다. 이 공물은 13일에 다시 새 것으로 갈아차려진다. 平成7년 (1995년)의 [御正忌]報恩講行事는 표 1과 같다.

本 공물의 구체적인 재료나 제법에 관한 것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500년의 전통을 지켜온 龜屋陸奥의 기업기밀이었으나 순수한 학문적인 발표를 전제로 알려준 것이다. 그 회사 자신도 대대로 구전되어 온 것이라 현재까지 기록된 일이 없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다. 특히 각공물을 가족끼리 분담하여 만드는 관계로 전부 모아서 저자에게 전달된 점으로 보아 일본국내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발표되는 것이다.

2. [御正忌]의 供物

[華束], [花束], [花足], [洲濱] 등으로 불려져 온 본 공물은 眞宗의 독특한 형식으로 彩色을 한 小餅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기록상으로는 山科시대의 證如上人の 年忌記錄 그

丑 1. 平成七年 御正忌報恩講行事案内

日	時間	行 事	場 所
9 (月)	13・00	常例布教	総会所
	13・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3・50	御親開	"
	14・00	速夜(大師影供作法)	"
	14・55	速夜布教	"
	15・30	初夜(改悔批判) 勸学・深川倫雄	"
	19・00	初夜布教	総会所
10 (火)	6・30	晨朝(小経(呉音)) (往生礼讃偈(日没))	阿弥陀堂 御影堂
	8・10	晨朝布教	総会所
	9・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0・00	日中(二門偈作法)	"
	10・50	日中布教	"
	13・00	常例布教	総会所
	13・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4・00	速夜(奉讃大師作法)	"
	14・50	速夜布教	"
15・30	初夜(改悔批判)	"	
19・00	初夜布教	総会所	
11 (水)	6・30	晨朝(小経(呉音)) (往生礼讃偈(初夜))	阿弥陀堂 御影堂
	8・10	晨朝布教	総会所
	9・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0・00	日中(正信念仏偈作法)	"
	10・50	日中布教	"
	11・20	特別講演	本願寺会館
	13・00	常例布教	総会所
	13・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4・00	速夜(大師影供作法)	"
	14・50	速夜布教	"
15・30	初夜(改悔批判)	"	
19・00	初夜布教	総会所	
12 (木)	6・30	晨朝(小経(呉音)) (往生礼讃偈(中夜))	阿弥陀堂 御影堂
	8・10	晨朝布教	総会所
	9・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0・00	日中(正信念仏偈作法)	"
	10・50	日中布教	"
	11・20	特別講演	本願寺会館
	13・00	常例布教	総会所
	13・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4・00	速夜(浄土法事讃作法)	"
	15・00	速夜布教	"
15・30	初夜(改悔批判)	"	
19・00	初夜布教	総会所	

丑 1. 계속

日	時間	行 事	場 所
13 (金)	6・30	晨朝(小経(呉音)) (往生礼讃偈(後夜))	阿弥陀堂 御影堂
	8・10	晨朝布教	総会所
	9・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0・00	日中(二門偈作法)	"
	10・50	日中布教	"
	11・20	特別講演	本願寺会館
	13・00	常例布教	総会所
	13・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4・00	速夜(奉讃大師作法)	"
	14・50	速夜布教	"
14 (土)	15・30	初夜(御伝鈔拜読)	"
	19・00	初夜布教	総会所
	6・30	晨朝(小経(呉音)) (往生礼讃偈(晨朝))	阿弥陀堂 御影堂
	8・10	晨朝布教	総会所
	9・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0・00	日中(正信念仏偈作法)	"
	10・50	日中布教	"
	11・20	特別講演	本願寺会館
	13・00	常例布教	総会所
	13・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5 (日)	14・00	速夜(大師影供作法) 引き読み御俗姓	"
	19・00	初夜布教	総会所
	6・30	晨朝(小経(呉音)) (往生礼讃偈(日中))	阿弥陀堂 御影堂
	8・10	晨朝布教	総会所
	9・30	門信徒の集い	御影堂
	10・00	日中(二門偈作法)	"
	10・50	日中布教	"
	11・20	特別講演(手話通訳)	本願寺会館
	13・00	常例布教	総会所
	13・15	門信徒の集い (作品展表彰式)	御影堂
16 (月)	14・00	速夜(広文類作法) ご門主様ご親教(手話通訳)	"
	16・00	御正忌報恩講奉讃演奏会	本願寺会館
	18・00	初夜(改悔批判)	御影堂
	18・45	お通夜布教(終夜)	総会所
	翌 6・15	本願寺会館	
	6・30	晨朝(小経(呉音)) (正信偈・真譜)	阿弥陀堂 御影堂
9・30	門信徒の集い	"	
10・00	日中(報恩講作法) 報恩講私記・嘆徳文	"	

※晨朝布教・日中布教・常例布教・速夜布教・初夜布教(9日(月)~11日(水)晨朝: 福岡 藤 澄 11日(水)日中~15日(日): 安芸 森重一成)
※特別講演(しおり)55 参照

리고 山科, 石山時代의 다수의 범요기록에 [五色の花束]을 공물로 바쳤다는 사실이 보인다. 그리고 京都堀川시대, 准如宗主代까지도 菓子나 果物類가 없이 年中行使나 각 代上人의 每年回忌에 小餅만으론된 [彩色花束十具]라고 하여 제를 지냈다. 과자나 과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法如宗主代와 天明元年부터로서 그 공물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白餅, 彩色餅, 伊賀餅, 山吹餅, 高麗草餅, 燒饅頭, 黃饅頭, 紅落雁, 算落雁, 白雪, 梅花, 紅梅香, 洲濱, 縮羅, 樵, 胡桃, 昆布등인데 이중에서 高麗草餅이 나오는데 한반도에서간 餅의 일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썩이나 그외의 풀이나 나무잎을 이용한 餅으로 추측된다.

本寺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御正忌]의 공물중 근래의 기록을 보면 明治34年(1901)

本堂一彩色餅, 紅梅糖, 銀栗, 各一合
御影堂一壇上南側獻備之順

彩色餅, 羊羹, 山吹, 紅白算落雁, 蜜柑, 洲濱, 紅餅, 算落雁, 栗, 饅頭(千盛) 各一合

宗助年忌中 650 回大御遠忌의 공물은

本堂一六具로 彩色餅, 羊羹, 紅梅香, 山吹, 紅白落雁, 銀栗

御影堂一二十四具로

雁色餅, 揶羊羹, 紅梅香, 菊落雁, 唐土, 素麵, 黃落雁, 金栗, 白雪香, 小落香

洲濱, 昆布, 卷煎餅, 牡丹押物, 幾代餅, 油花, 織止, 菊輪有平, 胡桃, 紅餅, 山吹, 栢, 干柿, 銀杏押物로서 이 24구외에도 靑, 黃, 紅, 白의 大盛饅頭의 四本이 차려졌다.

다음으로 明治36년(1903)의 明如上人의 장의시 葬場에 차려진 공물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縮羅, 藤袴, 호一口, 蛭峨野, 素麵, 卷煎餅, 羊羹, 丸外良, 白雪香, 油花, 作柿, 青海苔, 小落雁, 蜜柑, 洲濱, 源氏卷, 椎茸, 靑餅, 氷籬蕪, 胡桃, 絲湯葉, 栢, 菊落雁, 觀世麩, 干瓢, 昆布, 銀栗, 最上柿, 揶羊羹, 松風, 燒饅頭, 山吹, 下り藤, 金柑, 石竹, 丁字麩, 蓮花山吹, 銀杏, 雲降, 八ツ藤, 重大根, 牡丹, 桔梗餅, 白梅香, 若葉饅頭, 殘菊, 唐土, 丸落雁, 栢, 白餅

이상의 50종류를 2개씩, 합계 100종류의 공물을 바쳤는데 이것을 [百味の 음식]이라 經典에 전해지고 있다⁸⁾.

본보에서 보고하는 [御正忌]의 공물은 餅, 粉, 果物이 그 기본이다. 사진 1~9에서와 같이 10종류로서 좌우로 진열하여 총 20개이다. 그 규모와 화려함이 극치를 표현해 주듯이 이를 [本願寺의 莊嚴](佛具·什物)이라고도 칭한다. 우선 공물을 담은 台인 供는 연꽃을 그

려서 蓮台 또는 華束이라고 한다. 四角은 白木 또는 銀濃이라 하여 주로 葬儀 追悼범요에 쓰여지고 六角, 八角은 金濃 또는 極菜色으로 일반범요에 사용된다. 윗쪽 들레에는 연꽃무늬의 종이로 둘러지고 색깔은 주로 金地赤綠色이다. 장의나 추도범요에는 銀地 또는 白地를 쓴다. 본범요에서는 八角 구채색을 쓰며 높이 32 cm, 직경 25 cm이다.

御正忌中の 御影堂壇上에는 彩色餅, 落雁, 山吹, 洲濱, 蜜柑, 紅梅糖, 松風, 紅餅, 銀杏과 초대형의 千盛饅頭등 10가지가 좌우로 배열된다. 배열순서는 左右 끝에 차려놓는 千盛만두외에는 특별한 규정없이 놓는다.

매년 12월이 되면 만들기 시작하는데 가족이 총동원되어 1개월간 걸린다고 한다. 10가지의 각공물에 관한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이외에 관한 내용은 설명으로 부연한다.

洲濱⁹⁾: 本寺 御影堂의 祖師前에 있는 前卓의 香爐 台를 [洲濱]라고도 한다. 3면이 섬같이 나왔다고 하여 섬의 해변을 의미하는 명칭이 되었다. 洲濱台 또는 洲濱卓이라고도 하며 中古에서 室町시대에는 정월이나 혼례시 축하의 뜻으로 쓰는 경축의례용 도구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島台는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한편으로 洲濱은 京名菓의 뜻으로도 쓰여져서 山科 시대의 [實如上人關維中陰錄]과 玄智의 [考信錄]에도 기록이 남아있다. 즉 특히 報恩講등에는 빼놓을 수 없는 공물인 것이다.

松風¹⁰⁾: 松風の 유래는 제11代 宗主인 顯如上人織田 信長과 11년간에 걸친 石山전쟁시 성안에서의 군량으로 쓰여졌던 과자이다. 그 제법은 밀가루에 흰 된장과 맥아당을 넣어 반죽하여 하루밤 재워서 발효시켜서 굽는 제법인데 400년의 역사를 지고 있다.

中東이나 인도의 밀가루 반죽하여 구운 [난]이라는 빵이 남방무역을 통하여 일본 즉, 石山本願寺에 전해진 듯하다고 한다. 그러나 [信長公記]에는 “唐土高麗南萬의 丹海上으로 出入해서”라는 문구에서 고려 지명이 들어간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千盛饅頭: 1대에 약 500개이므로 두대를 합해서 1000개이므로 千盛이라고 한다. 千盛饅頭에 은 동백꽃은 1대에 30개로 전부 60개이다. 재료는 赤金銀色の 꽃잎용 100매, 꽃술용 60매, 잎으로 120매인데 활판된 꽃과 꽃봉우리등을 섞어 만들어서 쫓는다.

이상의 供物은 1월 9일에 첫번째로 차리고 13일에 다시 새 것으로 바꾸는데 내린 공물은 寺內 승려들이나 本寺신도들에게 돌려서 나누어 먹는다. 이는 神道에서의 신에게 바친 후 사람이 먹는 神人供食사상과 동의이다. 그 외에도 원시신앙이나 조상에게 지낸 제사음식을 음복하는 일등과 神人供食을 신성시하여 불교에

표 2. [御正記]의 供物

供物名	높이 (cm)	1단당 개수	둘레 개수	전체 개수	1개당 무게(g), 모양	조제와 장식	
彩色餅	약 52 (天 5~7)	白 21 外 23	11 13	260 330	22 등근형	짚에 대나무 꽃이를 꽂아서 밑에서부터 쌓아올리고 맨 위에 꽃감을 장식(小餅飾)	
白雪香	"	白 46 紅 44	4 4	190 182	2.8寸×6.5分×5分 직사각형	八角의 종이대에 풀로 무치면서 밑에서부터 올린다(紅, 白)	
山吹	"	綠 17 黃 18	10 12	210 267	30 등근형	나무조각에 붙여서 10分 정도 쥘 후(쌀가루 단자) 대나무 꽃이로 찢어서 쌓음(黃, 綠)	
洲濱	"		20	10	240	1.5寸×8分×7分 직방달형	등근 종이 상자대에 작은 꼬치로 꽃는다. 전양갱(黃, 綠, 赤)
蜜柑	"		12	8	119	特少	등근 종이 상자에 꼬치로 꽂아서 떨어지지 않게 올린다.
紅梅香	"		50	21	1220	59 등근 꽃형	등근 종이 상자대에 풀로 부치면서 紅, 白, 綠으로 대작선무늬(小餅)
松風	"		19	13	287	20 직사각형	등근 종이 상자대에 금색테를 두르고 꽃이로 꽂은 후 위부터 장식(밀가루 케익)
紅餅	"		19	13	310	28 단자형	등근 종이 상자대에 꼬치로 꽃는다(쌀가루 단자)
銀杏	"		26	33	972	特大	등근 종이 상자대에 풀로 부치고 금박종이로 두른다.
千盛饅頭	약 121 (3天 5寸)		30	14	490	50 등근형	술반죽으로 쥘 후 구워서 건조 긴 꼬치 꽂아서 아래서부터 배열 수 꽃을 꽃는다. 팔소를 넣는다.

서도 제를 마친수 공양물을 많은 불도 즉 대중이 다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는 상단권공의 공력을 대중과 함께 갖는다는 제의 본래의 뜻이다. 자양한다는 의미를 지닌 공양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며 불교에서 생명이란 중생과의 상관관계에서 존재하므로 중생과의 연기론적 생명관에 연유한다. 이는 피와 살을 나누는 천주교의 성찬이나 창조론적 생명관을 지닌 기독교와도 비교가 된다¹¹⁾.

本寺의 공물은 순수한 불교의식이라기보다 古代로부터의 上代신앙속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교, 불교, 도교, 주자학등이 혼합되어 형성된 食文化임을 알 수 있다.

사진 10은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인 救仁寺(1945년 단오일 예창건)에서 올린 靈山齋로서 무주고혼을 왕생극락케 천도하는 제의식인데¹²⁾ 4년에 한번 행해져서 1995년에 있었다. 구인사 천태종에 문의한 바 천태종 특유의 제사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절과 동일하며 통상 유교적 제사나 무속의 제와 다를 바 없으나 단지 동물성을 없애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사진 11도 역시 영산재의 전형적인 행사인데 六法 供養인 향, 등, 果, 花, 味 1가지 부족하므로 찾아서 넣음의 6가지 공양을 올리고 화청으로는 제의식의 전통민속적 의미의 절차도 부여된다.

사진 12는 1991년에 행해진 奈良법음사에서의 성적태자의 1370周忌인데 奈良시대로서는 일본 最古 그리고 最大의 제사로서 일본불교의 번성과 더불어 형성된 식문화이다. 갖가지 야생과일을 높이 고이고 쌀로 만든 떡, 쌀을 반죽하여 튀긴 柿揚은 한국 藥菓의 초기과정으로 추정되며 봉황떡의 장식은 부처나 신에게 바치는 生花가 계절이 맞지 않아서 造花로 그리고 비단이나 떡으로 변천됨을 알 수 있다. 고배형식으로는 처음으로 보여주는데 높이 고이는 뜻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정성과 기쁨을 의미한다. 현재에도 전라도에는 수선이나 매화를 만든 꽃떡이 백제 문화의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화려한 꽃장식은 무속이나 궁중의 반과상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13杯御膳중의 은행, 꽃감은 [御正忌]에도 나오지만 한국고배음식중에도 빠질 수 없는 것으로 그외에 대추, 호두, 밤, 잣이

생실과에 속하는 것이다. 전보에서의 春日이나 특히 談山에서의 다종의 야생과일중에는 현재에는 古代과일로 다시 복귀해 볼만한 관심거리로 남아있다. 원추형의 고배형태는 [御正忌]와 談山이 유사하다.

山吹나 紅餅가 쌀가루단자인 점은 찰쌀가루중심의 떡을 먹는 일본보다 쌀가루떡이 많은 한국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고 彩色餅, 白雪香, 紅梅香등의 落雁類는 썬서 건조시켜서 설탕과 함께 색을 바르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茶食類나 당숙과인 사탕, 녹춘당, 오화당, 영안, 꿀병, 당대초의 설탕을 사용한 원색적인 색채가 연관 지어진다. 채색병에 꽃감을 꺾는 것을 범용사의 공물과 상통하는 또는 일반적으로 상식하는 습관이 남아 있음을 볼 때 오랜 전통 식품으로 보게 된다.

쌀가루 다음 단계로 등장하는 것이 밀가루와 녹말가루 그리고 팥과 팥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千盛만두가 그 예이다.

사진 13은 7~11세기경의 최고권력가인 藤原家の 氏社였던 談山神社의 [百味御食]로 보여주는데 그 종류가 많은 것으로 本寺에서도 [百味の 음식]이라 했던 近世의 [御正忌]와 동일하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고배음식의 화려한 문양과 그 색채에서는 五行說과 관련을 지을 수 있으며 前身이 절이었을 것이란 점에서 兩社가 모두 불교색이 짙은 神饌이다.

사진 15, 16은 현재까지 이어온 전통혼례의식에서의 큰상과 회갑상으로 종교적인 시발에서 민간의 일반통과의례식에까지 혼합, 융화된 한반도 특유의 고배형식 문화를 보여준다.

사진 17은 조상에 대한 제사로서 밤, 대추, 꽃감, 은행등의 생과가 기본적으로 놓여지는데 이는 앞에서 범용사의 불공에서도 古代신찬 그리고 本寺[御正忌]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여졌다. 春日에서의 껍질을 벗기지 않은 生菓이 현재 한국에서는 거피하고 곱게 쳐 다듬어서 제사와 경축일 고임상에 놓는 빠질 수 없는 과일류이다. 특히 날밤을 즐겨먹는 풍습은 오래전부터의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드문 일이다. 또 한가지는 튀김조리가 드문 한국전통음식에서 약과는 특이한 전통적인 과자이다. 범용사의 도넛형 柿揚의 쌀가루반죽튀김에서부터 春日에서의 각종 餡餠역시 쌀가루반죽튀김으로 단순한 도넛형에서 국화나 쪼는형으로 모양이 다양하게 변했다. 조리상 튀김이 어려운 쌀가루에서 비교적 용이한 밀가루 튀김인 약과나 매자과등으로 변용해 온 것이 조리법상으로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찰쌀가루로 튀기거나 지지는 주악도 이 부류에 넣어서 무리가 없다로 본다.

사진 18, 19는 무당의 굿차림으로 고임과 색채 그리고 문양의 공통성이 보이고 당숙류가 주를 이룬 점이

보인다. 시루떡은 앞서 밥을 모양지어 올리던 범용사나 春日의 飯의 대신 즉 쌀알을 그냥 쓰는 밥에서 가루로 만들어 떡을 찌내는 과정 그리고 다음으로는 팥을 나쁜 귀신을 쫓는 의미로 쓰는 점도 보인다.

사진 20은 京都의 西本願寺의 전경이다.

사진 21은 1994년에 成均館에서 열린 秋季釋奠祭인데 이는 中國의 대표적인 제례의식의 기본을 보여주는데 한반도의 공물이나 고임상과 같은 中國曲阜에서 열린 2546週期 孔子탄신일의 釋奠祭인데 넓은 생반에 생 것으로 대추, 밤, 은행, 바나나, 사과등을 놓아서 올리는 정도이다. 물론 한국의 孔子석전제는 본래 중국식을 배워온 것이다. 중국이 도중에 없앤 것이나 사진 23은 몽골의 대표적인 종교인 라마교의 불전앞의 제물이다. 양쪽에 사진 24와 같은 유제품이 놓여진다.

이상에서 볼 때 불교는 대체로 관용적인 종교로서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다른 종교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했다¹³⁾.

이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나 한국은 神佛習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일본에서는 [扶桑略記](783)에 의하면 八幡神을 “대자제왕보살”, [東大寺要錄]에서는 “호국영험위력신통대자제왕보살”이라 호를 부쳤다. 그리고 특히 천태승 惠亮(802~860)은 賀茂와 春日大社の 2神을 위해서 연분도자 2인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고 있다. 신은 불이나 보살처럼 모습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흔적을 보인다는 소위 佛本神迹의 사상이다¹⁴⁾.

한국은 한국에 들어온 불교가 외래종교중 가장 전래연원이 오래된 무속과 습합되었다. 절에 山神이나 칠성각을 모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巫神중에는 석가모니, 약사보살등이 신앙되기도 하고 무당은 보살로 불려지기도 한다. 무속과 불교가 마찰 없이 습합될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인 종교적 공통분모가 있는 것에서 비롯된 점에서 일 것이다. 유교의 조상숭배의 관념은 원래 중국의 토속적인 원시적 天神숭배와 영혼관에 기초를 두어 합리화, 체계화시킨 것이다. 한국에 전래된 후로는 재래의 天神신앙, 조상숭배의 전통적인 관념과 영합되어 더욱 고조되었을 것이다. 즉 유교를 표방하면서도 재래민간신앙의 기틀 속에 뿌리를 두었다고 본다¹⁵⁾. 도교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이들속에 융해되어 버렸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본다면 3년제같은것은 도교신앙과 연관이 있고 음식을 차려서 제사드리는 것은 유교 의식이며 관육을 하여 전생의 죄를 씻는 씻김굿은 무속신앙이며 이는 기독교의식과도 유사하다. 불교는 이들을 다 받아 들이는 셈이다. 즉 불교의식속에는 바라문교의 의식과 유교, 도교, 무속 내지는 기타 민속의 식까지를 포함시킨 것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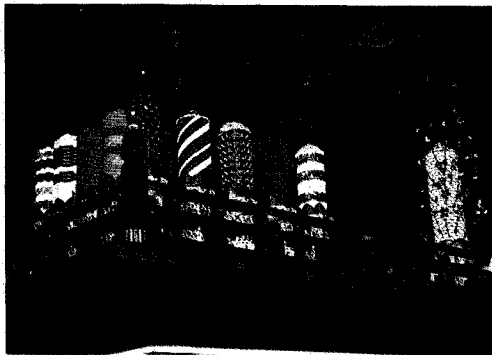


사진 1. 御正忌供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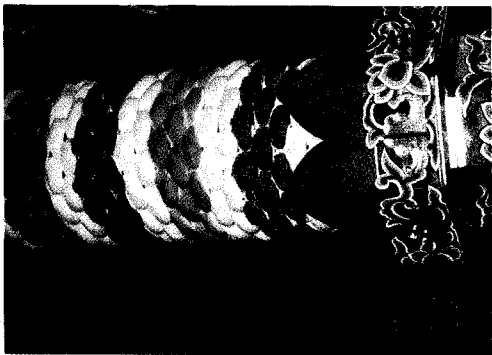


사진 2. 彩色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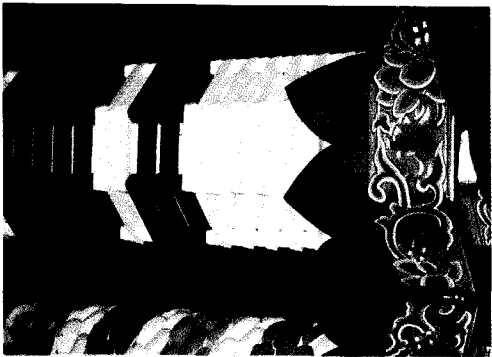


사진 3. 白雪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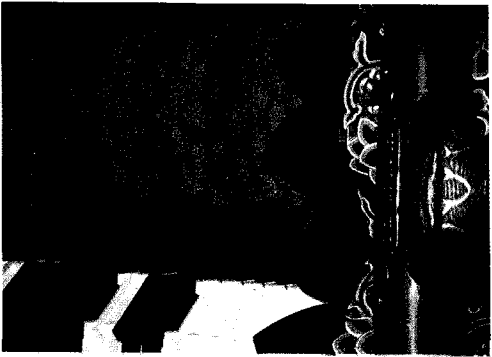


사진 4. 山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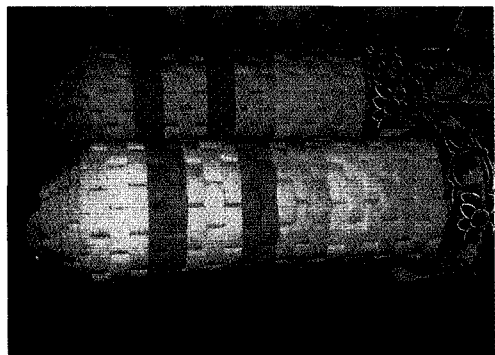


사진 5. 洲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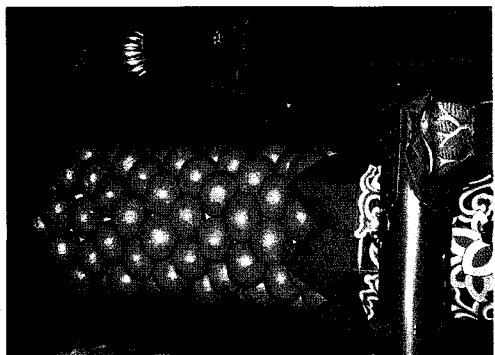


사진 6. 蜜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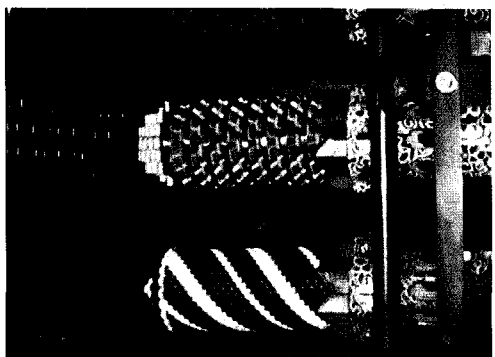


사진 7. 紅梅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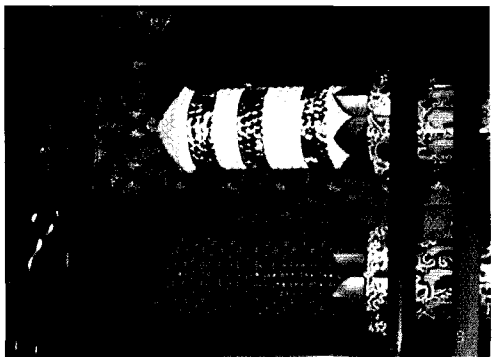


사진 8. 松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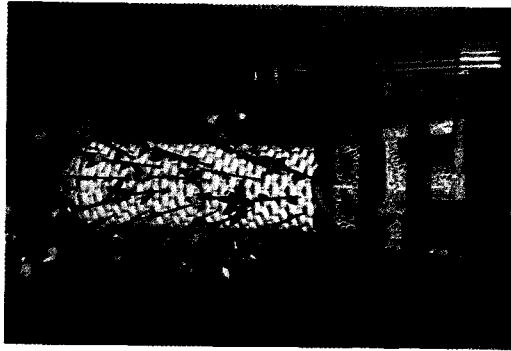


사진 9. 千盛饅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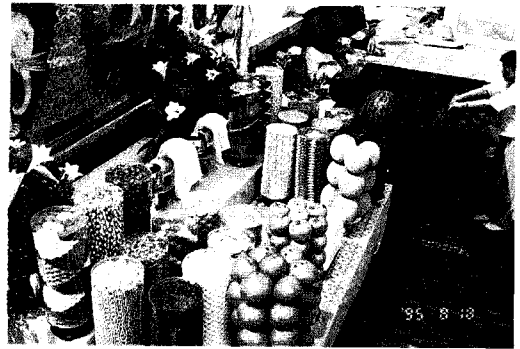


사진 10. 救人寺供物(天台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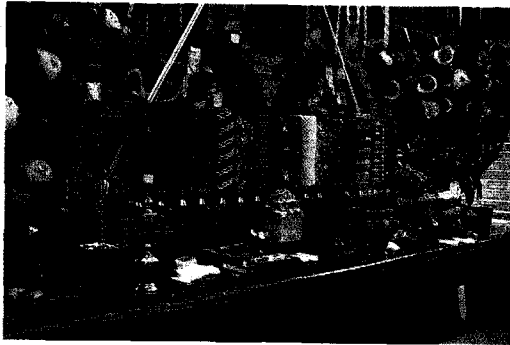


사진 11. 영산재 供物



사진 12. 法隆寺의 聖靈會 供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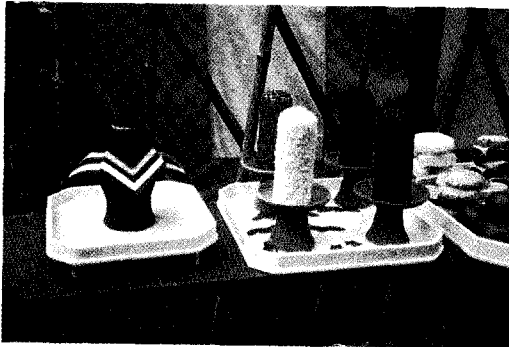


사진 13. 春日大社의 若宮祭



사진 14. 談山神社의 嘉吉祭



사진 15. 큰상



고임상
사진 16. 회갑 고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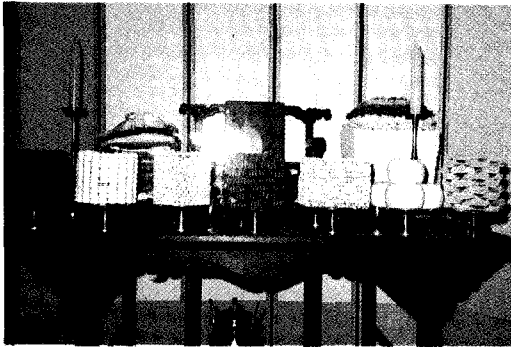


사진 17. 제사(민속박물관)



사진 18. 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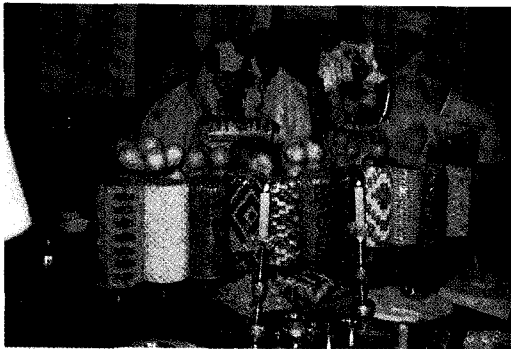


사진 19. 굿(국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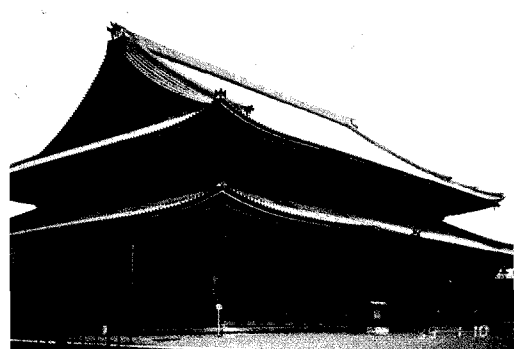


사진 20. 京都西本願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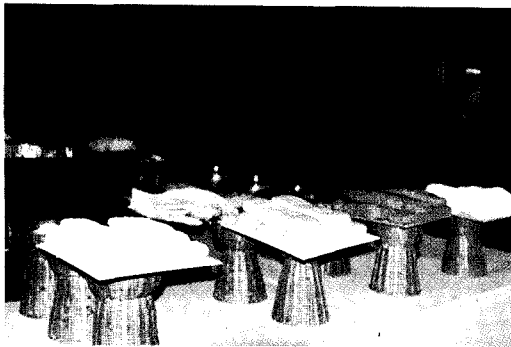


사진 21. 성균관의 釋奠祭



사진 22. 중국 曲阜의 釋奠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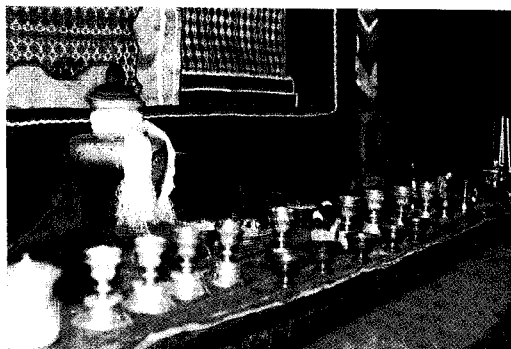


사진 23. 몽골라마교의 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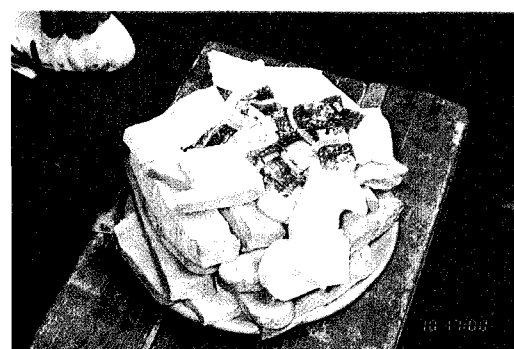


사진 24. 몽골의 유제품 供物

이러한 신불습합의 기반위에 형성된 古代에서 現代까지의 제례의식은 한반도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시대적으로 꽃을 피어온 유일하게 특징을 지닌 식문화중의 하나이다.

III. 결 론

일본불교사상 最大의 齊의 京都西本願寺의 [御正忌] 供物이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6세기부터 한반도나 일본열도와와 불교, 문화, 학문등의 교류가 빈번했던 시대에 형성되었던 神社와 절의 古代宗教行食文化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에 존재하는 민간통과의례식과 불교, 유교, 무속의 제례까지에서 보이는 고배형식의 색채, 문, 규모 그리고 사용된 과자류, 빙과류, 과일류, 떡류 등의 식품재료와 조리법에까지의 변천과정중에 本寺의 공물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건인역활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연관성과 이번 기회에 발굴된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本寺의 [御正忌]는 일본불교제례식문화상 최고의 그리고 대표적인 고배형식이란 점이다. 또한 이 고배형식은 신불습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형성, 완성된 식문화이며 이는 원시 신앙이나 인류학적, 문학적으로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시베리아나 몽골 또는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한반도 특유의 식문화로 보여진다. 특히 구인사의 영산재의 공물과도 거의 흡사한 점이 주목할 만하고 [百味の 음식]이라는 本寺의 공물용어중 百味는 古代神饌에서 자주 쓰여지는 것이다. 한국은 祭나 齋에서 뿐만 아니라 산사람의 경축시에까지 고배형식과 거의 유사한 재료와 색깔과 문양을 거부감없이 체질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1. 神人供食사상
2. 神佛習合文化(原始信仰, 佛敎, 儒敎, 道敎)
3. 古代와 現代의 종교행사간의 유사성
4. 한반도는 종교의식과 동시에 민간풍속화
5. 과일 대신 떡과 과자류의 발달
6. 生花로부터 造化, 餅花, 다양한 떡장식으로의 변

천

7. 어느 종교나 의례식에서 쌀이 중심공물
8. 五色은 五行說에 근거
9. 食을 통한 최대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화려한 고배식문화를 형성

끝으로 한국식문화 5000년 그리고 한일문화교류를 3000년으로 볼 때 집중적으로 흡수한 일본의 6세기경 奈良시대로부터의 현존하는 古代食文化의 발굴과 조사가 앞으로 더욱 진전되어 기록이나 자료에 있어서 공백에 가까운 한반도의 古代食文化자료의 복원에 힘을 기울여서 더욱 보충할 작업이 남아 있다는 점과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만주중심의 식문화연구가 필요함을 통감한다. 금번 보고서에서 불충분한 부분을 앞으로 한층 보완하고 밝혀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本願寺. 本願寺그라프, p. 11. 本願寺출판사, 1990.
2. 다부라시로의. 천태법화사상, p. 12. 민족사, 1990.
3. 가마타시게오. 한국불교사, p. 41. 민족사, 1992.
4. 權又根. 古代時文化와 조선도래인 雄山關 p. 3-25, 1989.
5. 石田瑞磨. 일본불교사, p. 182, p. 28, p. 166. 민족사, 1990.
6. 김천호. 일본법음사 성덕태자제자 공물을 통한 한국 고대식 추정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2): 223-228, 1991.
7. 김천호. 일본신찬을 통한 한국고대식의 추정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3): 281-291, 1991.
8. 김천호. 일본신찬을 통한 한국고대식의 추정연구(2). 한국식문화학회지 8(2): 139-146, 1993.
9. 本願寺. 本願寺史, 本願寺출판사, p. 243-248, 1984.
10. 行信紋校. 一味, 一味출판부, 658號, p. 16-17, 1994.
11.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p. 335-346, 1994.
12.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불교의 첫걸음, 본총무원, p. 57, 1994.
13. 홍윤식. 영산재, 대원사, p. 85, p. 95, 1994.
14. 渡邊昭宏. 불교사의 전개, 불교시대사, p. 14, 1992.
15. 한정섭. 불교의식의 바른 이해, 삼원사, p. 164-165, 1995.